혼인건수 12년 만에 반등…3년째 19만건대

초혼연령 男 34살·女 31.5살…외국인과 결혼 3천건↑
이혼건수 4년째↓…남자 60대 이상·여자 40대 많아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늘었으나, 3년 연속으로 20만건을 밑돌았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혼 26년 새 38만9천→19만4천건 '반토막'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보다 1.0%(2천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건 2011년(0.9%) 이후 처음이다.

1996년 40만건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천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2021년(19만3천건)부터는 20만건 밑으로 내려와 3년 연속 19만건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7월(-5.3%), 8월(-7.0%), 9월(-12.3%), 11월(-4.4%), 12월(-11.6%)에 감소했기 때문에 연간 증가율은 1.0%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인 조(粗)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3.7건)과 비슷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했다. 10건 중 1건은 '국제결혼'이라는 얘기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18.3%(3천건) 증가했다.

◇10년새 초혼 연령 남자 1.8세·여자 1.9세↑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추세가 굳어져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3세, 0.2세 올랐다.

10년 전(남자 32.2세·여자 29.6세)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재혼하는 평균 연령은 남자 51.4세, 여자 46.9세로 전년보다 남자는 0.4세,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이 7만건으로 36.3%를 차지했다. 30대 후반(3만7천건) 19.2%, 20대 후반(3만5천건) 1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자는 30대 초반이 6만8천건으로 35.1%를 차지했다. 이어 20대 후반(5만6천건) 28.8%, 30대 후반(2만6천건) 13.2% 순으로 많았다.

◇결혼건수 줄자 이혼도 동반 감소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줄었다.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다.

혼인 건수 자체가 줄면서 이혼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1년 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녀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7세, 여자는 4.2세 올랐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천건)이 2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초반(1만5천건) 16.1%, 40대 초반(1만5천건) 15.7% 순이었다.

반면 여자는 40대에 많았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40대 초반(1만6천건)이 16.8%를 차지했고 40대 후반(1만4천건)도 15.2%였다. 50대 초반(1만3천건)이 14.2%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삼성 광주사업장 생산라인 풀가동 삼성전자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어 광산구 하남산단 내 광주사업장 제품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비스포크 AI 콤보를 제조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투데이경제

국민연금 광주본부 '노후준비 상담사' 워크숍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9일 "광주·전남·전북·제주 4개 거점지사 소속 노후준비 전문상담사의 업무역량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홍철 전남대 가정교육과 교수와 함께 지역주민의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의 합리적 소비 등에 대해 컨설팅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준비 전문상담사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연령대별 노후 자금 수준에 따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수입, 지출 등 현금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습득해 보다 나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 광주·전주·목포·제주지사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미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의 전문성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북구 中企 디자인 개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9일 "광주 북구와 4월9일까지 '2024 북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북구에서 지원하며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을 통해 시장경쟁력과 매출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북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범위는 ▲기업 이미지(CI) 또는 브랜드(BI) 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등이다.

수혜기업인 중소기업과 수행기업인 디자인 전문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되 디자인 전문기업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수혜기업은 1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이 광주 북구에 소재해야 하고 최근 3년 이내 같은 내용으로 유사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의 '공고/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bukgu@gdc.or.kr)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지 기자

무협 광주전남본부, 지역 수출기업 금융지원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9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광주무역회관에서 '광주·전남 수출기업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회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하고 70여명의 수출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무역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수출자금대출,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각 기관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했으며 1:1 현장 심층 상담 등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금융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했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

민간 컨소시엄 구성…내달 16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9일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 지원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 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로, 지난 2019년 이후 인천·대전·충남 천안·경북 경산에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되는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도심형과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주도하게 된다.

창업 공간과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구 제도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해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을 갖춘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이다.

대상자는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설계용역 비용 5억원과 건축비 121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신청 및 접수는 20일부터 4월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boj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솔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010-6670-9800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유흥가능 (룸,노래홀,홀덤빠)

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

★ 전용 100평 ★ (분양160평)

(보3천, 월수익 350만)

▶ 시세 - 13억

▶ 급매 - 7억 (융4억)

062-382-55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전남

광산구 신창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
북구 용봉동 (카센타)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